2024년 일본 세관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

- 수입 금지 건수가 과거 최고 실적 기록 -

일본 재무성은 2025년 3월 7일 2024년 1년간 전국 세관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총괄

수입 금지 건수는 33,019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발표를 시작한 1987년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입 금지 수량은 1,297,113점으로서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다.

1일 평균 90건, 3,544점의 지재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1]으로 환산하면 약 282억엔 정도이다.

(표1) 연도별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실적

구분	2004년	201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건)	9,143	32,060	30,305	28,270	26,942	31,666	33,019
점수(만점)	103.7	89.6	58.9	81.9	88.3	105.6	129.7

2. 수출국(지역)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중국이 26,604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건수의 80.6%를 차지하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베트남이 3,215건(전년 대비 19.5% 증가, 구성비 9.7%), 말레이시아가 979건(전년 대비 101.4% 증가, 구성비 3.0%), 한국이 785건(전년 대비 4.5% 증가, 구성비 2.4%)이었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이 931,082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수량의 7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대만이 237,430점(전년 대비 4186.5% 증가, 구성비 18.3%), 홍콩이 47,612점(전년 대비 71.8% 증가, 구성비 3.7%), 베트남이 45,407점(전년 대비 31.7% 감소, 구성비 3.5%)이었다.

1) 정품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건수와 수량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건수에서는 베트남의 구성비가 중국에 이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3. 지적 재산 종류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위조 상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이 31,212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건수의 93.6%를 차지하여 계속해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위조 캐릭터 물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1,380건(전년 대비 59.9% 증가, 구성비 4.1%)이었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상표권 침해 물품이 443,887점으로서 전년 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지 수량의 34.2%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317,293점(전년 대비 300.5% 증가, 구성비 24.5%), 의장권 침해 물품이 298,131점(전년 대비 32.6% 감소, 구성비 23.0%)이었다.

(표2) 지적 재산 종류별 수입 금지 건수 구성비 추이(%)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23년	**95.5**	2.7	1.1	0.7	0.0
2024년	**93.6**	4.1	1.5	0.8	0.0

(표3) 지적 재산 종류별 수입 금지 수량 구성비 추이(%)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2023년	**47.4**	41.9	7.5	3.2	0.0
2024년	**34.2**	23.0	**24.5**	**18.3**	0.0

4. 품목별 수입 금지 실적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가열식 담배용 카트리지 등 연초 및 끽연용구, 배터리 등 전기제품,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 등 가정용 잡화, 자동차 부속품 등의 수입 금지 적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의류가 11,774건(전년 대비 13.2% 증가, 구성비 31.1%)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지갑, 핸드백 등 가방류가 7,293건(전년 대비 19.2% 감소, 구성비 19.3%), 구두류가 4,228건(전년 대비 4.9% 감소, 구성비 11.2%), 신변잡화류가 2,083건(전년 대비 51.5% 증가, 구성비 5.5%)이었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연초 및 끽연용구가 191,976점(전년 대비 39.6% 감소, 구성비 14.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의류가 74,160점(전년 대비 12.1% 감소, 구성비 5.7%),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57,516점(전년 대비 16.6% 감소, 구성비 4.4%), 종이 제품이 36,830점(전년 대비 76.2% 증가, 구성비 2.8%)이었다. 또한, 자동차 부속품이 23,668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기타(구성비 58.2%)에는 스티커 라벨이나 포장 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수입 형태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 금지 건수로 보면 우편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28,948건(전년 대비 3.5% 증가, 구성비 87.7%), 일반화물이 4,071건(전년 대비 10.1% 증가, 구성비 12.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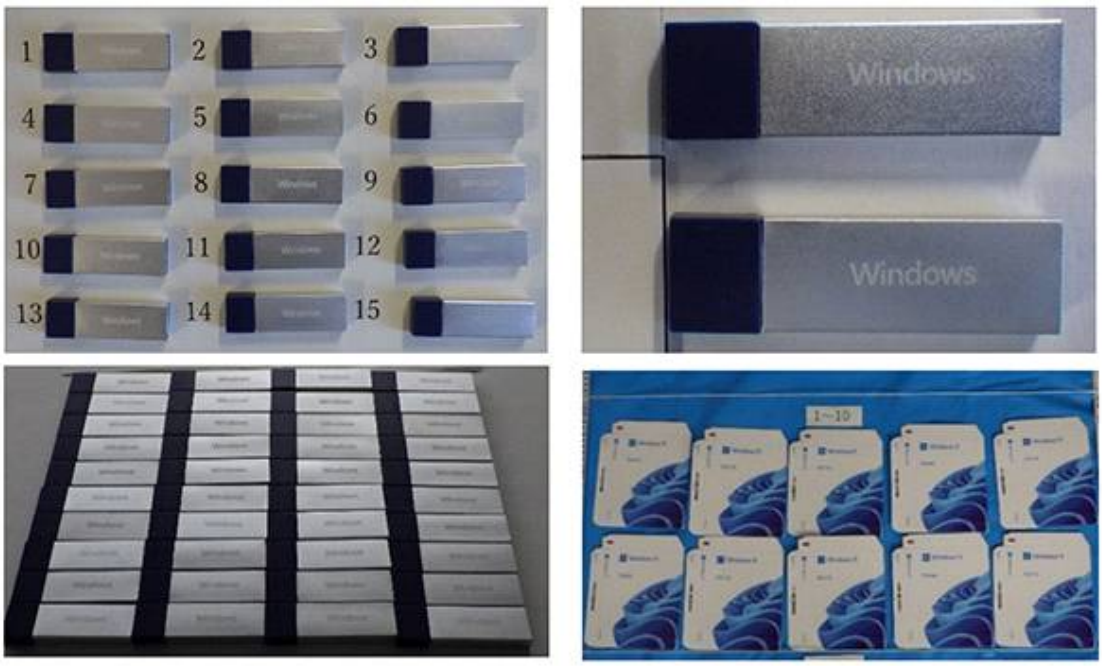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우편물이 359,883점(전년 대비 4.4% 감소, 구성비 27.7%), 일반화물이 937,230점(전년 대비 37.9% 증가, 구성비 72.3%)이었다.

6. 주요 적발 사례

1) 동경 세관은 2024년 10월 후쿠시마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34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 고베 세관은 2024년 2월 효고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목걸이 등 887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베트남인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3) 오사카 세관은 2024년 3월 교토부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USB 메모리 등 4,008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 나가사키 세관은 2024년 7월 구마모토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등 34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 결론 및 전망

2024년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실적을 보면 수입 금지 건수가 과거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건수와 수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수입 금지 건수의 경우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년 대비 101.4%나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중국, 대만, 홍콩은 증가했지만, 베트남은 감소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전년 대비 4186.5%, 홍콩의 경우는 71.8%나 대폭 증가하였다.
지적 재산 종류별로 보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 물품이 건수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량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 물품이 전년 대비 300.5%나 대폭 증가하였고, 특허권 침해 물품의 전체 수입 금지 수량 구성비가 대폭 증가(3.2%⇒18.3%)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성이 있는 연초 및 끽연용구, 의약품, 정수기용 카트리지 등 가정용 잡화, 전기제품 등의 적발이 계속되고 있다. 수입 금지 건수로는 신변잡화류가 전년 대비 51.5%, 수입 금지 수량으로는 종이 제품

이 전년 대비 76.2%나 대폭 증가하였다.

수입 형태별로 보면 수입 금지 건수로는 우편물이 87.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 금지 수량으로 보면 일반화물이 72.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관세법인 대륙아주